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보도자료

2025. 2. 17.(월)

대검찰청 대변인실
 전화 02-3480-2100
 팩스 02-3480-2704

자료문의 :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(마약과)
 전화번호 : 02-3480-2290
 주책임자 : 대검 마약팀장 이태순

「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5차 회의」 개최

- '24년 마약 압수량 17.6% 증가, 마약사범 16.6% 감소, '25년 중점 대응방안 수립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오늘(2. 17.) 대검찰청·경찰청·관세청·해양경찰청·국방부·국정원·식약처는 제5차 「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(이하 '특수본')*」 회의를 개최하여, '24년 각 기관별 마약류 범죄 단속 관련 업무추진 성과를 분석하고, '25년 마약 범죄 중점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.

* 『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』는 온라인 마약거래의 보편화,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, 마약으로 인한 2차 범죄의 급증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범죄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'23. 4. 검찰·경찰·관세청·국방부·해경·식약처·국정원 등 7개 유관기관이 합동하여 총 974명 전담인력 규모로 출범한 마약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수사단속협의체임

- 특수본 중심의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통해 '23년 역대 최대 규모 마약사범(27,611명)을 단속하였고, '24년에는 집중단속 효과로 마약류 압수량은 1.173kg으로 전년(998kg) 대비 17.6% 증가한 반면, 마약사범 수는 23,022명으로 전년(27,611명) 대비 16.6%(4,589명) 감소하였습니다.

【최근 5년간 마약관련 단속현황】

구분	'20	'21	'22	'23	'24
전체 마약사범 단속인원(명)	18,050	16,153	18,395	27,611	23,022
증감율(%)		▲12.5	▼10.5	▲13.9	▲50.1
밀수입사범 단속인원(명)	837	807	1,392	1,235	1,126
증감율(%)		▲6.9	▼3.6	▲72.5	▼11.3
밀매사범 단속인원(명)	3,947	3,229	3,492	7,904	6,593
증감율(%)		▲14.8	▼18.2	▲8.1	▲126.3
투약사범 단속인원(명)	9,044	8,522	8,489	10,899	9,528
증감율(%)		▲10.2	▼5.8	▼0.4	▲28.4
10대 마약사범(명)	313	450	481	1,477	649
증감율(%)		▲31.0	▲43.8	▲6.9	▲207.1
마약류 압수량(kg)	321	1,295	804	998	1,173
증감율(%)		▼11.2	▲303.1	▼37.9	▲24.1

- 세관 단계에서의 마약류 단속·적발 증가로 마약류 전체 압수량이 증가하였고, **압수량의 증가가 국내 유통 및 투약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범정부적 대응이 모범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**을 확인

※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'23년 1,477명으로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하였으나, 온라인 마약범죄 집중단속,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강화, 맞춤형 치료·재활 등의 효과로 '23년 대비 '24년은 649명(56%↓)으로 대폭 감소

- 다만, 대부분의 마약사범이 감소추세로 전환된 상황임에도 **외국인 마약사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**,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(주로 동남아 근로자, 불법체류자 등)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입하여 매매·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하기 때문임

※ 외국인이 국내에 마약류 밀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, 최근 마약류 원료를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, **외국인 마약 제조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마약류를 제조·유통하는 사례도 적발되었음**

【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사범 단속현황】

구분	'20	'21	'22	'23	'24
마약사범 단속인원(명)	1,958	2,339	2,573	3,151	3,232
증감율(%)	▲28.1	▲19.5	▲10.0	▲22.5	▲2.6

● 이번 제5차 특수본 회의에서는 '24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, '25년에는 각 기관 역량을 결집하여 아래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

- ① **【마약류 국내유입의 철저한 차단】** 관세청을 중심으로 세관 단계부터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고, 주요 마약발송국 현지에 파견된 수사인력을 통해 현지 공조수사를 진행, 마약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
- ② **【마약류 유통범죄 단속 강화】** 텔레그램, 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 거래 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고, AI 기술 등 최첨단 장비를 수사현장에 도입
- ③ **【외국인 마약사범 및 우범시설(클럽·유흥가 등) 집중 단속】** 전국 17개 시도별 검경 등으로 구성된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외국인 마약사범 및 우범시설 집중 단속 계획 수립, 합동 단속활동 전개
- ④ **【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단속 강화】** '25. 2.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형사 처벌 규정 도입에 따른 수사범위 확대 철저 대비,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대응 합동단속 실시 ☑

1

제5차 회의 개최 개요

- **(일시·장소)** '25. 2. 17.(월) 10:00, 대검찰청 NDFC(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) 2층
- **(참석자)** 대검찰청 마약·조직범죄부장(노만석),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(유재성), 관세청 조사국장(이종욱), 해양경찰청 수사국장(김인창), 국방부 검찰단장(김동혁)·조사본부 수사단장(정승기),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(강백원),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장 등 16명
- **(주요 내용)** ① '24. 각 기관별 마약류 범죄 단속 관련 업무추진 성과 분석, ② '25. 마약범죄 중점 대응방안 수립

2

특수본 구성 배경 및 주요 경과

- **(출범 배경)** 다크웹·SNS 등 온라인 마약거래 확산으로 일반인·청소년들이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마약범죄 및 그에 따른 2차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, 범정부적 수사·행정역량을 결집하여 공동 대응하기 위해 '23. 4. 특수본 구성
- **(주요 경과)** '23. 4. 대검찰청 마약·조직범죄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으로 특수본 구성 및 출범
 - **(제1차 회의)** '23. 4. 10. 검찰·경찰·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, 신속 정보공유 및 적시 공동대응, 청소년 상대 공급사범 철저 단속방안 등 협의
 - **(제2차 회의)** '23. 6. 14. 국방부·해양경찰청·국정원 등 참여로 전담인력 규모 974명으로 확대, 군대 내 마약범죄 적극 대처 및 대규모 마약류 밀수 단속강화 방안 등 논의
 - **(제3차 회의)** '23. 12. 6. 검찰·경찰·서울시의 유흥시설 마약수사·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, 셀프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 집중단속 방안 논의

- (제4차 회의) '24. 5. 9. 특수본 출범 1주년 성과 발표, 온라인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 대응 강화, 「사범-치료-재활 연계모델」 전국확대 시행 등 논의
- (인력 구성) 검찰(377명)·경찰(371명)·관세청(92명)·국방부(48명)·해경(86명)·국정원(보안) 마약수사 전담인력 총 974명



3 '24. 특수본 마약범죄 대응 성과

■ '24. 성과 개요

- (모범적인 대응 방향 확인) 특수본 중심의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통해 '23년 역대 최대규모 마약사범(27,611명)을 단속하고, '24년 집중단속 활동의 효과로 마약류 압수량은 17.6% 증가한 반면, 마약사범 수는 16.6%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마약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이 모범적인 방향임을 확인
- (마약사범 감소 추세 진입) '23년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27,611명으로 최초 2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, '24년 단속된 마약사범은 23,022명으로 전년 대비 16.6% 감소

《연도별 마약류사범 단속 인원》

구 분	'18	'19	'20	'21	'22	'23	'24
단속인원(명)	12,613	16,044	18,050	16,153	18,395	27,611	23,022
증감율(%)	▼10.7	▲27.2	▲12.5	▼10.5	▲13.9	▲50.1	▼16.6

▣ '24. 마약범죄 주요 현황

- (밀수입 사범 감소) 마약류 밀수입 사범이 지속적 증가세에 있었으나, 해외 밀반입 단속 강화로 '23년도부터 감소 추세로 들어서기 시작하여 '24년도에는 1,126명으로 전년(1,235명) 대비 8.8% 감소

《연도별 밀수입 사범 단속 인원》

구 분	'18	'19	'20	'21	'22	'23	'24
단속인원(명)	521	783	837	807	1,392	1,235	1,126
증감율(%)	▲8.3	▲50.3	▲6.9	▼3.6	▲72.5	▼11.3	▼8.8

- (밀매 사범 감소) 국내 마약류 매매사범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'23년도에는 7,90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, '24년도에는 6,593명으로 전년(7,904명) 대비 16.6% 감소

《연도별 밀매사범 단속 인원》

구 분	'18	'19	'20	'21	'22	'23	'24
단속인원(명)	2,763	3,437	3,947	3,229	3,492	7,904	6,593
증감율(%)	▼20.4	▲24.4	▲14.8	▼18.2	▲8.1	▲126.3	▼16.6

- (투약 사범 감소) 마약류 투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'23년도에는 10,89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, '24년도에는 9,528명으로 전년(10,899명) 대비 12.6% 감소

《연도별 투약사범 단속 인원》

구 분	'18	'19	'20	'21	'22	'23	'24
단속인원(명)	6,177	8,210	9,044	8,522	8,489	10,899	9,528
증감율(%)	▼15.9	▲32.9	▲10.2	▼5.8	▼0.4	▲28.4	▼12.6

- **(10대 마약사범 감소)** 10대 마약사범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'23년도에는 1,477명으로 전년(481명) 대비 207% 급증하여 역대 최대치 기록, 다만, 범정부 단속 노력,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강화, 맞춤형 치료·재활 등의 효과로 '24년도에는 649명으로 전년(1,477명) 대비 56.1%로 대폭 감소

《연도별 10대 마약사범 단속 인원》

구분	'18	'19	'20	'21	'22	'23	'24
10대(명)	143	239	313	450	481	1,477	649
증감율(%)	▲20.2	▲67.1	▲31.0	▲43.8	▲6.9	▲207.1	▼56.1

- **(마약류 압수량 증가)** '24년도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1,173.2kg으로서 전년(998kg) 대비 17.6% 증가

《연도별 마약류 압수량》

구분	'18	'19	'20	'21	'22	'23	'24
마약류 압수량(kg)	415	362	321	1,295	804	998	1,173
증감율(%)	▲168.4	▼12.8	▼11.2	▲303.1	▼37.9	▲24.1	▲17.6

※ 세관 단계에서의 마약류 단속·적발 증가로 전체 압수량이 증가하였고, 압수량의 증가가 국내 유통 및 투약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모범적인 대응 방향 확인

- **(외국인 마약사범 증가)** 대부분의 마약사범이 감소추세로 전환된 상황에도 외국인 마약사범만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'24년 단속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총 3,232명으로 전년(3,151명) 대비 26% 증가

《연도별 외국인 마약사범 단속 현황》

구분	'18	'19	'20	'21	'22	'23	'24
외국인(명)	948	1,529	1,958	2,339	2,573	3,151	3,232
증감율(%)	▲1.7	▲61.3	▲28.1	▲19.5	▲10.0	▲22.5	▲2.6

- **(국내 체류 외국인 마약범죄 증가)** 국내 체류 외국인들(주로 동남아 근로자, 불법체류자 등)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입하여 매매·투약하는 등 산업단지, 대규모 농장 등을 중심으로 마약류 불법유통 사례 급증

- ▶ 인천 소재 베트남 노래클럽에서 케타민, MDMA를 집단 투약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13명을 검거하여 9명 구속기소, 4명 불구속기소하였고, 마약공급책 1명을 추가 검거·구속한 사례 (**24. 1. 인천계양경찰서**)
- ▶ 약 1년 6개월 동안 말레이시아와 한국을 매달 왕래하며 국내에서 외국인(대부분 불법체류자)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해 온 말레이시아 국적의 총책을 검거·구속기소하고 중간유통책 및 매수·투약사범 5명 검거, 4명 구속한 사례 (**24. 7. 원주지청**)
- ▶ 근무지이던 평택시 소재 축사의 숙소에서 아바를 투약하고, 화물차·승용차를 연달아 훔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재차 승용차를 절취하려다 적발된 불법체류 태국인 마약사범 검거·구속한 사례 (**24. 10. 평택경찰서**)
- ▶ 경기도 시흥시 소재 노래방에서 케타민, MDMA를 집단 투약하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8명(불법체류자 7명) 및 유흥종사자 1명(한국 국적)을 전원 검거·구속기소하고, 베트남 국적의 노래방 관리자 1명을 마약류 알선 및 투약 혐의로 구속한 사례 (**24. 12. 시흥경찰서**)

- **(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입 증가)** 마약 밀수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은 장기 체류자나 내국인보다 동선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, 외국인(주로 동남아 국적)이 국내에 마약류 밀수입을 시도하는 사례 증가

- ▶ 말레이시아에서 원형 목재 의자 안에 필로폰 약 7.8kg을 은닉하고, 정상 물품인 것처럼 위장한 채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국내 수령책 1명 검거, 구속한 사례 (**25. 1. 인천공항세관, 인천지검**)
- ▶ 필로폰 약 1.6kg을 여행용 캐리어 안에 은닉하여 태국 發 항공편 기탁수하물로 밀수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사범 1명을 검거, 구속한 사례 (**24. 1. 인천공항세관, 인천지검**)
- ▶ 필로폰 약 2kg을 여행용 가방 내피에 은닉한 후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상해를 경유,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1명 검거, 구속한 사례 (**24. 11. 제주공항세관, 제주지검**)
- ▶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약 2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건넌받아 입국한 대만 국적 피의자 및 위 필로폰 약 2kg을 수령하려고 시도한 중국 국적 조선족 마약사범 2명 검거, 구속한 사례 (**24. 3. 인천공항세관, 인천지검**)

- **(외국인 제조기술자를 통한 마약 제조 사례 적발)** 최근 마약류 원료를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, 해외 제조기술자를 입국시켜 국내에서 마약류를 제조·유통하는 사례 적발

- ▶ 건축용 벽토 제품 통에 액상 코카인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콜롬비아에서 액상 코카인 불상량이 은닉된 화물 약 80톤을 말수하고 대부분을 다시 호주로 수출해 오던 중 국내 입국한 콜롬비아 국적 제조기술자를 통해 고체 코카인 약 61kg을 제조한 캐나다 마약조직원 및 유통사범 등 마약사범 8명 검거하고 경기도 광주 곤지암읍 소재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던 코카인 원료(액상 코카인) 452kg을 압수한 사건 **(’24. 11. 중부지방해경, 서울시경, 인천지검, 국정원)**
- ▶ 수원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P2P(페닐-2-프로판) 물질을 원료로 루카르트기법(제조 공정 순서 : 합성→정제→결정)으로 필로폰 약 9.4kg을 제조하고 추가로 약 9.1kg을 제조하던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 2명을 검거한 사건 **(’24. 10. 영등포경찰서)**
- ▶ 신종마약인 ‘러쉬’의 원료 800ml를 베트남에서 밀반입해 네일리무버와 물을 첨가하는 방법 등으로 ‘러쉬’ 3,420ml를 제조·매도한 도미니카연방 국적의 마약사범 1명과 이를 매수·투약한 한국인 2명을 검거한 사건 **(’25. 2. 서울강남경찰서)**

- **(마약류 중독자 치료·재활 시스템 개선)** ’24. 4. ‘개인별 중독수준에 맞는 체계화된 치료·재활 프로그램’ 및 ‘약물 모니터링’을 결합한 「사범-치료-재활 연계모델」 도입 및 기소유예 신설, ’24. 11. 전국 확대 시행 완료

4 '25. 중점 대응 방안

▣ 마약류 국내 유입 철저 차단

- **(세관 단계에서의 단속 강화)**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로부터 유입되므로, 세관 단계 단속 강화를 통해 국내 마약류 유입량 감소 중점 추진
 - 관세청을 중심으로 마약 밀반입 철저 단속하고, 유관기관에서 적극 지원
 - ※ 검찰은 마약범죄 전력 정보를 활용한 ‘마약밀수 고위험자 자료’를 추출하여 관세청에 제공하고, 관세청에서는 수하물·소지품의 우선적·집중적 검사 등에 활용하기로 협의
 - 한편, 최근 해외 마약제조책이 국내 입국하여 마약류 원료를 마약으로 제조한 후 유통시킨 사례 다수 발생, 국정원·관세청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마약류 원료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체계를 강화할 예정

○ **(해외 파견 수사인력 협력체제 구축)** 마약류 국내 유입을 사후적으로 단속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, 주요 마약발송국 현지에서 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 마약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

- 국내 마약유통책을 검거하더라도 주요 마약발송국 현지 총책이 운반책, 수령책을 소모품처럼 바꿔가면서 계속적으로 밀수를 반복하고 있어, 마약발송 현지에서 발송책을 검거하지 않는 이상 근원적 차단은 불가능한 점 고려
- 검찰·경찰·관세청·국정원 등 각 기관별 해외 파견 인력들을 원팀(One-team)으로 결성하여 국내 마약밀수·유통사범 검거로 밝혀진 현지 마약발송 조직을 실시간 국제공조로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마약밀반입 원점을 타격하는 시스템 구축

▣ 마약류 유통범죄 단속 강화

○ **(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류 유통범죄 단속 강화)** 텔레그램 등 SNS, 다크웹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각 기관별 시행 중인 온라인 마약류 유통범죄 단속 대책을 더욱 강화

※ 전체 마약사범 중 SNS 등 온라인 문화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30대 이하 마약사범의 비율이 '19년 49.1%에서 '24년 63.6%로 급격히 증가

- 각 기관에서 도입한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, 불법 온라인 마약 유통범죄 정보 상호 공유 확대, AI 기술 등 최첨단 장비 도입 등 단속 강화 방안 수립

▣ 국내 외국인 마약사범 및 우범시설 집중 단속

○ **(지역별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활용한 단속 추진)** '24. 전체 마약사범 감소 추세에도 외국인 마약사범은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음

- 전국 17개 시·도 지역별로 운용 중인 '마약수사실무협의체' 활용, 각 지역별 상황에 맞는 외국인 밀집지역·마약 우범시설(클럽 유흥가 등) 합동단속 계획 수립
- 또한,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기별 1회 (연 4회)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'컨트롤타워'로 기능하도록 역할 부여

▣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단속

- '25. 2.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'프로포폴 셀프처방 의사'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되어 수사대상 범위 확대
 - ※ 프로포폴 셀프처방 의사 현황: ('22) 98명, ('23) 88명, ('24) 84명 /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'의료용 마약류 오남용'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·검찰·경찰 등이 합동하여 강력한 합동 단속·수사활동 전개

5 향후 계획

- 향후에도 특수본 구성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와 강력한 마약범죄 단속으로 국내 마약류 유입 사전 차단하여 국내 마약류 공급과 수요 억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
 - 국내 유통·소비되는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(동남아)에서 유입되므로, 실시간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발송 현지에서 발송책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마약 밀반입 원점을 타격하는 '원점타격형 국제 공조시스템'을 구축
 - 특수본 소속 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국내 마약류 유통 조직을 엄단하고, 투약자에 대한 치료·재활 및 교육 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
- 마약범죄 특수본은 국내 마약수사 '컨트롤 타워'로서 마약범죄 단속을 위해 각 기관의 수사·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,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☐

【부서별 담당자 연락처】

담당 부서	대검찰청 마약·조직범죄부	책임자	과 장	이태순	(02-3480-2290)
		담당자	사무관	이병록	(02-3480-2292)
담당 부서	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·조직범죄과	책임자	과 장	안찬수	(02-3150-0141)
		담당자	계 장	길민성	(02-3150-2171)
담당 부서	관세청 국제조사과	책임자	과 장	최문기	(042-481-7740)
		담당자	사무관	우제국	(042-481-7702)
담당 부서	해양경찰청 형사과	책임자	과 장	주용현	(032-835-2058)
		담당자	계 장	박주식	(032-835-2161)
담당 부서	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	책임자	부 장	박장숙	(02-748-1710)
		담당자	과 장	김화경	(02-748-1711)
담당 부서	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	책임자	단 장	정승기	(02-748-1840)
		담당자	과 장	은영윤	(02-748-1841)
담당 부서	식품의약안전처 마약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현철	(043-719-2808)
		담당자	사무관	송현숙	(043-719-2804)